



정책

영국, 디지털 발전 전략 2024-2030 발표

DATE: 2024.03.18



Digital Strategy 2018-2020: Doing Development in a Digital World

2018년 1월, 영국 국제개발부 (DFID)*에서 개발한 디지털 전략

* 2020년 외무부와 합병되어
외무영연방 및
개발부(FCDO)로 전환

영국은 ‘디지털 개발’을 추진하기 위한 ‘디지털 발전 전략 2024-2030(Digital development strategy 2024 to 2030)’을 발표하였다.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‘디지털 전략(’18)’으로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한 최초의 양자 공여국인 영국은 자체 기술 및 혁신 생태계, 통신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및 표준 개발 역량, 정부 디지털 전환 경험, 디지털화 프로세스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전략을 추진한다.

본 전략은 다음과 같이 4개 목표를 가지며, 특히 ‘디지털 전환’ 관련하여 디지털무역표준에 대한 BSI(영국표준협회)와의 파트너십* 등 표준 관련 활동이 진행 예정이다. 또한 범정부적 디지털 환경 형성 및 개발을 위해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과 규제 및 표준, 디지털 도구 및 프로세스 채택 기관의 역량 등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.

* 케냐, 나이지리아, 브라질,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화 요구 평가, 역량 구축 표준 교육 등 ‘표준 기반 디지털화 툴킷’ 개발 및 출시



전략의 우선순위 영역

- ① 라스트마일 연결성
- ② 디지털공공인프라(DPI)
- ③ 인공지능
- ④ 여성 및 소녀

이 외, △디지털경제에 대한 투자 △디지털 민주주의 △사이버보안 △그린 디지털 등 분야도 중점 진행



전략 목표 및 하위 내용[영국 디지털 발전 전략, 한글화]

- (디지털 전환) 디지털 기술을 통해 경제, 정부, 사회 촉진
- (디지털 포용) 디지털 세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
- (디지털 책임) 안전하고 탄력적인 디지털 환경 구현
- (디지털 지속가능성) 기후 변화 및 환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